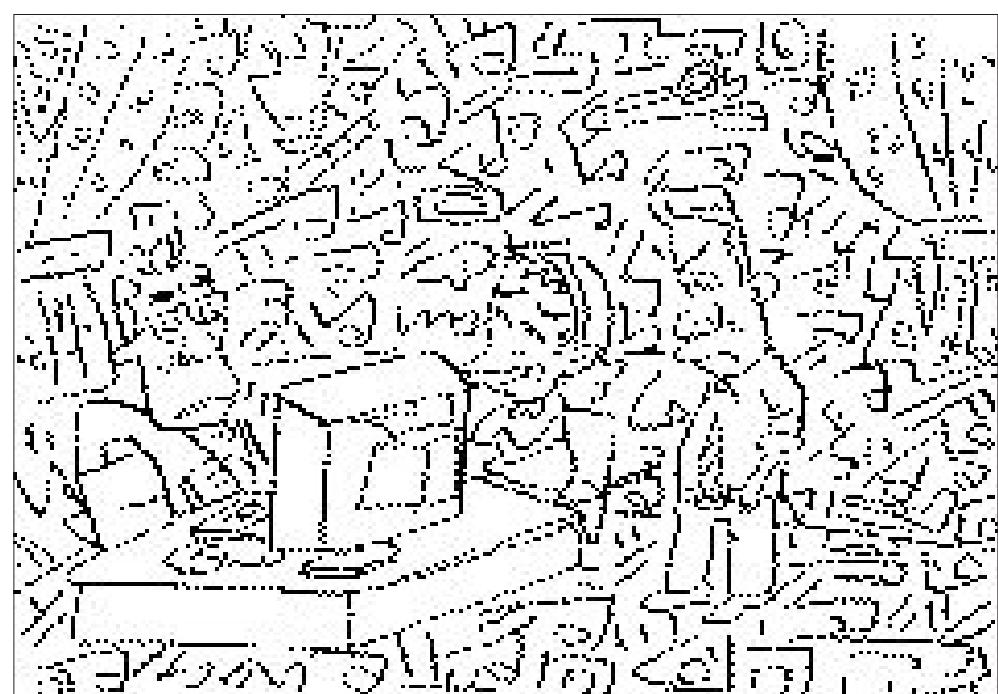


 숨은그림찾기 <89>


(찾아보세요) 담배파이프, 사람 옆얼굴, 서틀록, 펜촉, 열대어, 바늘, A자, 병따개, 고추

## 정말 질기구나

검사가 여자 살인범을 심문하고 있었다.  
“당신이 독을 넣은 커피를 남편이 마실 때 조금도 암시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?”

“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습니  
다”

“그때가 언제였죠?”

“남편이 커피를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였습  
니다”



## 지난주 정답

롯, 열대어, 나비, 바늘, 서틀록, 제비, 송시리, 봉당연  
필, 칫솔

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.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  
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, 상품권(2만원)을 드립니다.

▲보내실곳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

▲당첨자: 이정례(광주시 북구 용봉동) 유성훈(광주시 북구 용봉동)

## 아하! 오늘 바로 그날

“가진 것이 많을수록  
줄 수 있는 건 적습니다”

‘빈자의 어머니’ 테레사 수녀 타계



“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. 그  
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(예  
수님을)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, 들려 해도 들  
리지 않고, (기도하려고) 입을 움직여도 말이  
나오지 않습니다.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  
시기 바랍니다.”

‘빈자의 성녀’ 테레사 수녀의 편지 40여편을  
모은 책 ‘마더 테레사 : 내게 빛이 되어주세요  
(Mother Teresa : Come Be My Light)’가 10주  
기념 출간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.

‘캘커타의 성녀’ 테레사 수녀는 지난 1997년 9  
월 5일 87세를 일기로 숨졌다. 낡은 무명 사리 두  
벌과 샌들 한 켤레가 그가 지녔던 것 전부였다.

그의 임종 소식은 전 세계는 이념과 종  
교를 떠나 한 마음으로 추모했다. 교황 요한 바  
오로 2세는 그의 사랑 소식을 듣는 즉시 기도를  
올렸고 임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새벽부터 1  
천여명의 인파가 테레사 수녀가 안치된 수녀의  
집으로 몰려들었다. 장례식은 9월 13일 인도 국  
장으로 엄숙히 거행됐으며 150만명의 추모객  
들이 길에 꽂을 뿐이며 애도했다.

지난 1910년 구 유고 연방 마케도니아의 알바  
니아인 집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는 18세 때인  
1928년 가톨릭에 귀의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  
며 이듬해 인도로 건너가 히말리야 산자락의 로  
테타 수도원에서 수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도  
와 인연을 맺게 됐다.

당시만 해도 아그네스 수녀로 불리던 그녀는  
1948년 인도 시민권을 획득한 뒤 테레사 수녀로  
개명을 하고 혈혈 단신으로 캘커타 빈민가에서  
고아·나환자·무의탁 노인 등 가난한 사람을 위  
해 평생을 바쳤다.

테레사 수녀가 이 때부터 입었던 하얀 천에  
푸른띠가 있는 의상은 1950년 그가 설립한 ‘사  
랑의 선교회’의 수녀복이 됐고 캘커타 평화원에  
서 시작한 ‘사랑의 선교회’는 이제 전 세계에서  
수천여명의 수녀와 수사, 자원봉사자들이 밀려  
드는 조직으로 성장했다.

테레사 수녀는 이같은 공로로 1979년 노벨평  
화상을 수상했다. 그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남  
긴 “나는 빈민들의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다. 배  
고고고 헐벗고 집없는 사람과 불구자·맹인·나환  
자,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 
이상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한다”는 말은 유명하  
다. 테레사 수녀는 1989년 심장병으로 심장 박  
동기를 달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일선에서 적  
극적인 구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세계를  
돌며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빈자들에게 대한  
사랑의 중요성을 설�했다.

이처럼 평생을 빈자와 병자로 돌보며 사랑을  
실천한 그녀도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엿볼  
수 있다는 점, 그녀의 편지를 모은 책이 세인의  
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 아닐까.

/김지기자 dok2000@kwangju.co.kr